

홍 순 환 Hong Sun Hoan

수평적 관계로서의 소통

김옥렬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펠)

신라갤러리 초대전인 <중력의 구조>는 문화 역사적 관계 속에 놓인 '나' 혹은 '너'의 삶에 대한 작가적 시선이다. 그 시선은 개별적인 삶이 주는 흔적을 통해 실존을 유추해 가는 나와 너의 경계,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소통과 만남에 대한 홍순환의 해석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회적 관계를 타인의 삶을 통해 반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의 설치는 오브제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물성이나 용도 혹은 형상의 차이가 묵묵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만, 그 설정은 역학적 관계(Dynamical relation)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로 설정된 오브제와 오브제 간의 틈과 결 그리고 무게와 부피는 바로 '나' 혹은 '너'로 환원되는 관계의 조건, 관계 항들이 갖는 사회적 조건의 경계로 작용한다. 그리고 '나' 혹은 '너'인 '우리'의 관계는 삶이 놓인 장소(site), 즉 <중력의 구조>가 작용하는 하나의 판(situation, state)위에 놓여 있다.

지난번 아트스페이스 펄의 개인전에서 보여주었던 <중력의 힘>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 간의 관계가 갖는 사고의 편향성 혹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갖는 부조리에 관한 것이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배치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보여주었던 <중력의 구조>는 보다 체계를 가진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사유한다. 어떤 점에서는 낯선 물체의 결합이라는 이중의 구조를 통해 그 틈새에서 익숙한 것의 차이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중력의 힘>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력의 구조>는 <중력의 힘>에서 보여주었던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 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 문맥에서 발생하는 역학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와 너 혹은 우리로 읽혀지는 장소와 장소 간의 맥락적인 구조를 전제한다. 이처럼 <중력의 구조>는 격자로 짜 맞추어진 매우 견고하게 구조화된 현대 도시풍경, 격자(grid)로 이루어진 하양 타일 위에는 투명한 유리구슬과도 같은 크고 작은 구들이 놓인 장소가 되고 있다. 일견 바둑판이나 체스판과도 같은 거대한 판은 우리가 놓인 장소 혹은 구조적 틀을 지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위에 놓여 있는 둥근 구체는 바로 바둑이나 체스판 위에 놓인 게임을 위한 돌이나 말일 것이다. 홍순환은 그 돌이나 말의 위치에 놓인 것을 투명하고 둥근 구체를 통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테면 전시 공간 전체를 장악한 판은 공간을 가로지르며 지지대를 갖지 못한 채 공간에 부유하듯 바닥에서 위로 띄워진 채 놓여있다. 이 판은 존재의 장소 혹은 지지대(공중에 부유하듯 불안정한 상태이지만)로 그 위에는 둥글고 투명한 공이 여기 저기 판위에 놓여있다. 투명한 공의 형상이 갖는 의미는 판과 함께 이번전시의 가장 핵심적인 오브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투명한 구체 너머 전시장 벽면에 걸린 사진은 역사의 한 순간에 존재했다가 사라져간 혹은 사라져갈 삶의 일상에 대한 한 순간의 정지된 이미지, 그러나 열린 시간의 문으로 작용하는 사진 오브제이다. 사진 오브제가 열린 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 저곳과 이곳이라는 공간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순환의 <중력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어구조의 체계와 구조주의 사회학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구조의 체계로 보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parole)는 사회적 규칙(langue)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와 나의 소통은 언어적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언어 구조의 이분법이 갖는 사회적 체계가 공유하는 규칙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을 갖는 대화는 소통의 도구로서 나와 너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규칙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사물의 기본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대화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구체적인 언어를 말한다. 이 같은 언어소통구조는 기표/기의, 통시성/공시성, 계열체/복합체 라는 이중의 체계들이 갖는 관계설정에서처럼, 이번 홍순환의 <중력의 구조>에 설정된 모티프들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분법적 모티프로 설정된 <중력의 구조>가 제시하는 작가적 시선은 구조주의사회학의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주의사회학에 대응하는 구조주의사회학은 삶은 주어진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고와 행위 역시도 구조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주의 사회학적 관점 중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 행위와 관습화된 구조가 인간의 행위에 외적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와 사고체계 그리고 습관 등을 통해 문화적 현상의 맥락을 밝히려는 사회인류학적 관점이기도 하다. 사회질서의 변화가 개별 인간의 주관적이고 능동적 추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은 확실히 홍순환의 <중력의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중력의 구조>는 사회집단에 따라 사고체계나 언어와 관습 등의 의식이 다양하게 발현되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험적 실체의 배후에 놓인 구조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것에 대한 역학적 관계의 설정은 동시대를 보는 작가적 시론일 것이다.

홍순환은 독일의 베흐시장 한 구석에서 무명의 사진가가 세심하게 기록해 놓은 100여 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발견한다. 그 사진에 담긴 삶의 기록은 그 어딘가에 있지만 단절된 타인의 삶에서 나 혹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력의 구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삶과 과거의 ‘저곳’에 있던 타인의 삶이 연결되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반인과적 관계에서 인과적인 관계의 형성이 가능해 진다. 그 의미는 반인과적 관계를 통해 불안정한 사회적 구조나 텅 빈 허상 속에 들어 있는 타인의 삶이 바로 현재의 우리 혹은 나의 삶을 반추하는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사유방식을 끌어내는 것에 있다.

홍순환의 공간에 대한 해석은 확실히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오브제, 그러나 중력에 지배되는 오브제인 설치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격을 <중력의 힘>으로 보여주었고, 이러한 시도 이전에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의 체계로 접근했던 진화량의 <중력의 구조>에 대한 전시 이후 신라갤러리에서 시도한 <중력의 구조>는 견고해 보이지만 불안정한 상태의 구조적인 틀 ‘중력’에 놓인 나와 너 혹은 우리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소통되는 사유의 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중력’이라는 주제로 일관하고 있는 홍순환의 일련의 작업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는 힘과 구조에 대한 사유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지점을 간파에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나와 너 혹은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중력의 힘과 구조에 작용하는 원리가 수평적 관계인식으로 소통되길 바래본다.